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5 Issue | Vol. 2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1분기 GDP 소폭 상승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쳐 — page 1
- 필리핀, 2050년까지 2조 달러 경제로 성장할 수 있어 — 경제기획개발부 발리사칸 — page 1-2
- 낮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높은 성장과 무역 — page 3-4
- 3월 공장 생산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 — page 4
- 간 선거, 필리핀의 관세 관련 리스크 극복 여부 좌우할 열쇠 — page 5-6
- EU 통상 책임자, 아시아와의 자유무역 협상 가속화 시사 — page 6-7

UPCOMING EVENT

- [May 14, 2025] 2025 JFC 클락 국제 믹서 — page 7

필리핀 1분기 GDP 소폭 상승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쳐 May 08, 2025 | Reuters | BusinessWorld

마닐라 - 필리핀 경제, 1분기 소폭 상승했으나 기대에는 못 미쳐.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미국의 관세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필리핀 경제는 1분기에 소폭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목요일 발표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1-3월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해 2024년 4분기의

5.3% 증가율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로이터 설문에서 전망한 5.7% 성장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였다.

경제개발부 차관 로즈마리 에딜론(Rosemarie Edillon)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적은 세계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상대적인 회복력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는 전 분기 대비 1.2% 성장했는데, 이는 로이터 설문에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중앙값인 1.6%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다.

1분기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공공 지출의 급증이었다. 공공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해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5월 1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45일간 시행되는 예산 집행 금지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가 인프라 지출을 앞당긴 결과다.

가계 소비도 개선되어 전 분기의 4.7%에서 5.3%로 증가했다. 에딜론 차관은 이러한 소비 증가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힘입은 것이라며,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그녀는 “통화 완화를 위한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4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1.4%로 하락하며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오는 6월 19일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5/08/671290/philippines-q1-gdp-grows-slightly-faster-but-lags-expectations/>

필리핀, 2050년까지 2조 달러 경제로 성장할 수 있어 — 경제기획개발부 발리사칸 May 08, 2025 | Reuters | Malaya Business Insight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은 개혁과 정부 개입

필리핀, 2050년까지 2조 달러 경제로 성장할 잠재력 보유

경제기획개발부(DEPDev) 장관은 필리핀이 전략적인 정부 개입과 개혁을 통해 2050년까지 2조 달러 경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DEPDev는 수요일 발표된 성명에서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장관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필리핀 경제가 그동안 어떻게 강력한 경제 모멘텀을 유지했는지 강조하고, 향후 몇 년간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발리사칸 장관은 5월 6일 밀라노에서 열린 필리핀 경제 대화에서 “현재의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중대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050년까지 2조 달러 경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DEPDev가 5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개되었다. [Cont. page 2]

필리핀, 2050년까지 2조 달러 경제로 성장할 수 있어 — 경제기획개발부 발리사칸

[Cont. from page 1]

필리핀 경제 대화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회 연례 회의 제58차 회의의 부대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유럽 비즈니스 및 금융 커뮤니티의 약 90명의 참가자들과 ADB 연례 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필리핀 시장 특징

발리사칸 장관은 필리핀 경제의 바람직한 시장 특징을 공유하며, 3,920억 달러의 경제 생산량, 상승하는 중간소득 국가로서의 발전, 그리고 1억 1,400만 명의 인구와 27세의 중위 연령을 언급했다.

정부는 투자들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동 번영을 창출하는 개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를 적극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민간 부문 주도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리사칸 장관은 대화에 참석한 이들에게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DEPDev 장관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프로젝트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증진시켰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 진전

주요 정책 진전으로는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FTA), 세금 납부 간소화법, CREATE MORE 법, 전략적 투자를 위한 그린 레인(Green Lane) 설립, 인프라 개발 촉진 및 사업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발리사칸 장관은 투자자들에게 루손 경제 회랑(Luzon Economic Corridor) 내의 기회를 탐색할 것을 초대했다. 이는 지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는 주요 정부 이니셔티브이다.

발리사칸 장관은 “루손 경제 회랑은 물류,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협력적 투자를 통해 수빅, 클락,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랑은 농업, 반도체, 제조업, 금융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며,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필리핀의 수석 경제학자는 정부가 인프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현재 1,780억 달러 규모의 207개 주요 프로젝트가 다양한 단계에서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민간 부문 역할

발리사칸 장관은 필리핀의 인프라 수요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민간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진화하는 노동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 개발에 대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강력한 거시경제적 기초, 개혁의 모멘텀, 숙련된 젊은 인력, 전략적 위치는 필리핀을 아시아와 글로벌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필리핀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 중 DEPDev는 예산 및 관리부 장관인 아메나 판간다만(Amenah Pangandaman)이 정부의 지속적인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해 강조하며,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를 Build-Better-More 프로그램을 통해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교육, 건강, 사회 보호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정부 조달법(New Government Procurement Act)’ 하에 민간 부문이 공공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향상된 기회와 대안들을 제공하는 게임 체인징(procurement)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재무부 차관 도미니 벨라스케스(Domini Velasquez)는 정부가 경제의 재정적 기초를 강화하는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필리핀의 국가 채무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언급했다.

한편, 필리핀 중앙은행(BSP) 부총재 제노 아베노자(Zeno Abenoja)는 필리핀 정부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관리했는지 강조하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소비와 투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위한 충분한 여유가 있음을 언급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may-grow-into-2t-economy-by-2050-depdevs-balisacan/>

낮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높은 성장과 무역

May 08, 2025 | Energy, Infra and Economics - Bienvenido Oplas Jr. | The Philippine Star

5월 12일 월요일에 있을 다가오는 선거는 주로 인물 중심이지만, 경제 문제도 캠페인 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이 발표한 최근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네 가지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실업률, 무역 및 GDP 성장

2025년 4월의 인플레이션은 1.4%로,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4.0%, 2022년 3.7%, 2023년 7.9%, 2024년 3.4%, 2025년 2.1%.

저는 재무부 장관인 랄프 렉토(Ralph Recto) 장관의 성명서를 좋아합니다. 그는 필리핀어로 이렇게 말했으며, 제 번역은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심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계속해서 이를 낮게 유지하며, 모든 필리핀 가구가 이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생필품의 저렴한 가격이 계속 유지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는 “이번 달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BSP(필리핀 중앙은행)가 정책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을 제공하여, 필리핀 사람들의 소비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서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기획부 장관인 아르세니오 발리사칸과 예산부 장관인 아메나 팡안다만은 이탈리아에 있었던 동안, 특히 0.7%에 불과한 식품 인플레이션에서 이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 감소에 대해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감소에는 좋은 날씨가 기여했습니다. 3월과 4월까지 비가 계속 내려 농작물 생산량이 높았습니다. 또한, 낮은 전기 및 유가, 그리고 원자재와 기름처럼 수입품이 더 저렴해진 폐소화의 가치 상승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3월 실업률은 3.9%로, 역시 좋은 소식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의 평균 실업률은 2021년 8.2%, 2022년 6.2%, 2023년 4.8%, 2024년과 2025년 모두 4.0%였습니다. 실업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의 수출액은 182억 달러, 2025년은 193억 달러로 5.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024년 295억 달러에서 2025년 320억 달러로 8.4% 증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월에서 3월까지의 총무역(수출 +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2024년 93억 달러(전체의 19.5%)에서 2025년 110억 달러(전체의 21.5%)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과 미국을 합친 비중은 2024년 20.7%에서 2025년 20.8%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2025년 1분기 GDP 성과는 오늘 늦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1분기 성장률은 2021년 -3.8%, 2022년 8.1%, 2023년 6.4%, 2024년 5.8%였습니다. 15명의 경제학자들이 참여한 BusinessWorld의 분기 조사에 따른 평균 성장 예측은 2025년 5.8% 성장입니다. 팬츠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칼럼에서 쓴 바와 같이, 세계에서 GDP 규모가 구매력 평가(PPP)로 5천억 달러 이상인 53대 경제국 중에서, 필리핀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인도와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1분기 GDP 성장을 발표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6.9%, 중국 5.4%, 대만 5.4%, 인도네시아 4.9%, 말레이시아 4.4%, 싱가포르 3.8%, 홍콩 3.1%, 한국 -0.1%.

2025년 1분기 GDP 데이터를 발표한 유럽국가들의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0.7%, 독일 -0.2%, 헝가리 0, 이탈리아 0.6%, 프랑스 0.8%, 스웨덴과 벨기에 1.1%, 핀란드 1.2%, 포르투갈 1.6%. 이는 이미 낮은 기저에서 발생한 경기 침체나 낮은 성장입니다.

위 수치의 경제적 및 정치적 의미

첫째, 낮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가계 소비가 증가하여 전체 GDP 지출과 성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BSP는 현재 5.5%의 금리를 5% 이하로 더 인하해야 합니다. (2024년 7월까지 6.5%의 최고치를 기록)

둘째, 낮은 실업률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가계 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Cont. page 4]



Last-minute shoppers flock to Divisoria in Manila.

The Philippine STAR / Ryan Baldemor

낮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높은 성장과 무역

[Cont. from page 3]

셋째,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이 5.8% 이상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가계와 기업 모두 전반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트남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아시아 이웃국가들보다는 좋으며, 확실히 모든 유럽 경제국들보다 낮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만 봐도, 저는 행정부 후보들이 월요일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선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행정부의 반중 감정과 가계 및 기업의 중국 제품 선호도 사이에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동안 중국과 홍콩의 총 무역 비중은 우리 총 무역의 26.5%로, 이미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 다른 모든 국가들의 비중은 우리 총 무역의 3/4 미만입니다.

한편, 경제팀은 지난 5월 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필리핀 경제 대화(PED)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발표자는 판간다만 장관, 발리사칸 장관, 재무부 부장관이자 수석 경제학자 도미니 벨라스케즈, BSP 부총재 제노 로널드 아베노자, DA 부장관 아시스 페레즈였습니다. 이는 ADB 연차 회의 기간 동안 경제팀이 개최한 사이드라인 회의 중 하나입니다.

저의 자발적인 조언은 경제팀이 올해와 내년에 더 많은 유럽 국가에서 PED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에서 말입니다. 이들 경제는 지난 3년 동안 거의 위축되거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5/08/2441321/low-inflation-and-unemployment-high-growth-and-trade>

3월 공장 생산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

May 08,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PNA file photo)

마닐라 -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3월에 국가의 공장 생산량이 약간 개선되어 제조업 부문의 완만한 회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발표된 월간 통합 산업 조사(Monthly Integrated Survey of Selected Industries)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생산 가치 지수(VaPI)는 3월에 0.4% 증가하여 2월의 -0.6%를 반전시켰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6.2% 감소에서 개선된 수치입니다.

PSA는 "2025년 3월 제조업의 VaPI 연간 성장률 상승은 주로 식품 제조의 연간 증가율이 13.9%에서 19.2%로 가속화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송 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제조 증가도 3월 VaPI 확장에 기여했다고 PSA는 전했습니다.

한편, 생산량 지수(VoPI)는 올해 3월에 0.2% 감소로, 2월의 -1.5%에서 감소 폭이 둔화되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VoPI가 -5.1%로 더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PSA는 식품 제조,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생산 증가가 3월에 VoPI의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조업의 평균 용량 이용률은 76.2%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이전 달 75.9%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PSA는 "모든 산업 부문이 이번 달에 50% 이상의 용량 이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량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산업 부문은 전기 기계 제외 기계 및 장비 제조(85%), 식품 제조(80.5%), 기타 제조 및 기계 및 장비의 수리 및 설치(80.3%)였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9545>

간 선거, 필리핀의 관세 관련 리스크 극복 여부 좌우할 열쇠

May 08, 2025 | By Ditas Lopez and Neil Jerome Morales, Bloomberg | BusinessWorld

필리핀의 5월 12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인 필리핀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의원 12명, 하원의원 300명 이상, 그리고 약 18,000명의 지방 공직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대외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려는 시점에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그의 소원해진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마닐라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인 eManagement for Business and Marketing Services의 조너선 라벨라스 전무는 “투자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경제 개혁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필리핀은 특히 전 세계가 불확실한 시기인 지금 정치적 불안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5년 1분기 필리핀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했으며,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5.7%보다는 낮지만 2024년 마지막 분기의 성장률보다는 소폭 빠른 수치라고 목요일 발표된 자료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2024년의 예상보다 낮은 5.7% 성장 이후에도 여전히 아시아 대부분 국가보다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며, 올해 최소 6%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통상 사절단은 지난주 미국 당국자들과의 초기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마닐라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17% 관세를 낮추려 함에 따라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예정된 관세율은 베트남에 부과될 예정인 46%를 포함한 동남아 대부분 국가에 부과될 위협적인 관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정책 입안자들은 국내 개혁을 지속할 수 있다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관세가 공급망 이전의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EU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운영 비효율성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라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PH-EU Chamber of Commerce) 회장 파울로 두아르테는 말했다. “이 전략적 기회를 잡기 위해 정부는 운영 비용을 낮추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필리핀 지부의 전무 이사 에브 힌치리프(Ebb Hinchliffe)는 “젊고 영어를 구사하는 노동력은 필리핀 경제의 큰 자산이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기업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문제들을 언급하며, 관료주의, 인프라 및 연결성 부족, 높은 에너지 비용, 규제 불확실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필리핀은 기업 유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법인세 인하, 재생에너지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소유 제한을 철폐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더 많은 개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이 정부의 개혁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랄프 랙토 재무장관은 지난달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6%에서 10%로 인상하려던 제안을 철회했다. 그는 최근 3개월간 충분한 세수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해당 법안은 향후 5년간 약 3,000억 페소(약 54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7월 새 국회가 개원하면 당선된 의원들은 본격적인 입법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광물 원광 수출을 금지해 하류 광산 산업을 육성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필리핀 니켈 산업 협회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에는 증권 거래세를 0.6%에서 0.1%로 낮추어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비 투자 매력도를 높이려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필리핀에서 발행되는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 외국 기업에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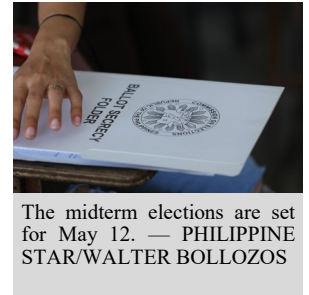
Sun Life Investment Management and Trust Corp.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리치 라이언 테오(Ritchie Ryan Teo)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의 평균 국내 자산 수익률은 -0.3%였던 반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의 평균 수익률은 12%에 달했다.

테오는 “과거 선거에서는 정당 간 갈등이 격화되었지만, 국회가 법률과 예산을 통과시키는 능력을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정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데, 7월에 시작되는 부통령 탄핵 재판에서 배심원 역할을 할 12명의 상원의원이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위기관리 전문업체 컨트롤 리스크(Control Risks)의 수석 분석가 데렉 아우(Dereck Aw)는 “기업들은 정치적 혼란이 자신들의 영역이나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며 “오히려 일부는 정치인들이 내부 갈등에 집중하느라 기업에 간섭할 틈이 없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Cont. page 6]



간 선거, 필리핀의 관세 관련 리스크 극복 여부 좌우할 열쇠

[Cont. from page 5]

지난해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사상 최고치인 38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소비는 필리핀 국내 경제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 비중은 20% 미만이다.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뒤 현재는 대형 기업집단인 SM 인베스트먼트(SM Investments Corp.)의 회장을 맡고 있는 아만도 테탕코(Amando Tetangco)는,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가 글로벌 리스크가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필리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이 구조는 일정 수준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덜 취약합니다.”라고 테탕코는 말했다. “우리는 무역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덜 개방되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환경에서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5월 7일까지 올해 들어 필리핀의 벤치마크 주가지수는 1% 하락해, 5% 상승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를 밀리고 있다. 반면, 필리핀 현지 채권은 달러 기반 투자자들에게 6.3% 수익을 안겨주었으며, 폐소화는 약 4% 상승했다.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경제기획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정치적 잡음은 많았지만 정책 방향은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며 “중요한 것은 정치적 소음이 좋은 정책을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은행, 부동산, 유통업에 걸쳐 SM 그룹을 이끄는 테레시타 시-코손(Teresita Sy-Coson)은 향후 전략에 대해 “우리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업을 계속합니다. 잡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bloomberg/2025/05/08/671302/mid-term-vote-holds-key-to-philippines-riding-out-tariff-linked-risks/](https://www.bworldonline.com/bloomberg/2025/05/08/671302/mid-term-vote-holds-key-to-philippines-riding-out-tariff-linked-risks/)

EU 통상 책임자, 아시아와의 자유무역 협상 가속화 시사

May 05, 2025 | By Agence France-Presse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싱가포르 —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세금 부과에 따라 아시아와의 자유무역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EU 통상 책임자가 수요일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이후 유럽에 대한 여러 고율 세금을 부과했으며, 가장 큰 조치로 지난달 EU 상품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 후 90일 간의 유예 기간을 발표했으며, 이 유예 기간은 7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워싱턴과의 협상은 우선 사항이지만, EU 통상위원 마로시 세프코비치(Maros Sefcovic)는 이러한 협상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오늘날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EU는 모든 자원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자적으로 우리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네 나라 모두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핵심 회원국들이다. 이 지역은 6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주에 또 다른 협상 라운드를 진행했다”고 세프코비치는 덧붙였다.

그는 수요일에 EU와 싱가포르 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한 후 싱가포르에서 발언하고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매우 명확하다: 계속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남는 것이다”고 말했다.

통상위원은 EU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들과의 “잠재적 협력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장 완화"의 징후

세프코비치는 유럽 통계청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EU는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1,540억 유로(1,7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1,040억 유로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Cont. page 7]

EU 통상 책임자, 아시아와의 자유무역 협상 가속화 시사

[Cont. from page 6]

셰프코비치는 EU가 50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재조정하기 위해 미국에서 더 많은 액화 천연가스, 대두, 고급 컴퓨터 칩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적자가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27개국으로 구성된 EU와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는 10%의 기본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협상자들은 7월에 더 높은 세금이 시행될 경우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상위원은 또한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세금 협상을 벌일 때 "긴장 완화"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총 145%의 세금을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125%의 세금을 부과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5/08/business/foreign-business/eu-trade-chief-says-accelerating-free-trade-talks-with-asia/2108586>

UPCOMING EVENT

ORGANISED BY

AMCHAM NORTH LUZON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Inc.

CAN-CHAM

eccp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JCCPI
The Japan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Philippines, Inc.

KCCP
Korea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2025
JFC CLARK
INTERNATIONAL
MIXER

Wednesday, 14 May 2025
6:00 PM - 9:00 PM
Clark Marriott Hotel
5398 Manuel A Roxas Highway Zone, Clark Freeport

JFC Members: Php 2,500 • Non-Members: Php 2,800

EVENT PARTNERS

AGS Global Solutions

ALVEO
an AppliedCard company

BERTHAPHIL CRK
CLARK FREEPORT

Canon

CONVERGE

EASTERN
COMMUNICATIONS

Ford

Leadify

Marubeni

SMDC
The good guys!

TGG
RESORT

조인트 포린 챔버스(JFC)는 2025년 5월 1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클락 마리엇 호텔에서 JFC 클락 국제 믹서 행사를 다시 한 번 개최합니다.

클락에서 열리는 두 번째 JFC 네트워킹 이벤트인 이번 국제 믹서는 다양한 배경과 산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교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행사에서 형성된 관계는 논의와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자극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JFC 네트워킹 이벤트는 200명 이상의 참석자를 끌어들이며, 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 비즈니스 및 외교 분야의 저명한 인물들, 그리고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행사는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KCCP 비서실(전화: 8885-7342)이나 이메일(info@kccp.ph)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